◈ 會員社 動靜 ◈

LG 産電(株), 물류 자동화분야 ISO 9001 인증 획득

국내 최대의 산업용 전기 · 전자업체인 LG産電(株)(代表 : 李喜鍾)은 프랑스 인증기관(BVQI)으로부터 물류자동화 분야의 4개 품목(자동창고시스템, 팔레타이저시스템, 도로교통관제시스템, 철도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다.

시스템 특성상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는 물류자동화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 획득으로 LG 산전은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ISO 품질규격에 대한 인증은 국제교역의 필수 사항으로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은 LG 산전 물류자동화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산전은 물류자동화시스템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혁신과 연구 · 개발 활동 결과 지난 '94년에 경부고속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수주, 미얀마에 국내기업 최초로 철도신호제어시스템 공급, 국제상사 종합물류시스템 수주 등 국내외에서 LG산전 물류자동화시스템의 품질을 인정 받으므로써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우위를 확보하고, 해외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해외 진출을 강화할 전략이다.

또한 LG산전은 '94년부터 품질혁신 전담팀 구성, 품질혁신을 임원 목표항목으로 중점관리 그리고 국제품질규격 인증 확대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펼쳐온 결과 품질관리 측면에서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고 이번 물류자동화 분야에 대한 ISO 인증 획득도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LG산전이 펼친 다양한 혁신활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95년을 "품질혁신의 해"로 정한 LG산전은 21C 품질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생산품목에 대한 ISO 인증을 확대하여 보다 완벽한 전사적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환경표준화 규격인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작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大延電子(株), 정지형 계전기 EMC 공동연구개발

정지형 계전기 전문 생산업체인 大延電子(株)(代表 : 鄭冀浩)는 한국전기연구소와 공동으로 정지형 계전기 EMC(Electromagnetic Compatability) 설계기술에 관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인 정지형 계전기의 EMC대책 즉 외부 써지로 인한 계전기의 오동작 방지회로가 국내계전기 설계회로에 그 대책이 미흡한 상태로 그동안 공급 설치 사용되어 왔으나 이로인한 계전기의 신뢰도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실정이었다.

이로 대연전자(주)에서 한국전기연구소에 EMC대책 공동개발을 의뢰함으로서 과학기술처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 양허 (제1차) 사업으로 국산보호계전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설정 추진하여 93년 7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정지형 계전기의 EMC 대책 설계기술 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서 ▲ EMI /EMC 기본 개념 정립, ▲ 노이즈 필터의 기본원리 및 설계법 확립, ▲ EMC 대책을 위한 SOFTWARE LOGIC 설계기술 향상, ▲ 정지형 계전기의 SURGE 대책 및 오동작 방지 설계 기술 축적, ▲ 정지형 계전기의 신뢰도 향상 설계기술 확립, ▲ 정지형 계전기의 전원용 전력변환장치(DC /DC 콘버터) 설계기술 축적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동사에서 생산되는 정지형 전력보호계전기 전 품목에 EMC 설계기술을 적용 SURGE 및 NOISE 오동작 방지에 더한층 완벽을 기하여 계전기 신뢰도를 향상 시키므로서 실수요자에게 선진국 수입제품 이상으로 국산 계전기 선호도를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향후 계전기 국산화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國際電線(株), 전력용 케이블 日 공급

國際電線(株)(代表 : 裵恩出)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고베 스미토모 가와사키 NKK 등 일본의 대형제철소에 전력용 케이블을 공급한다.

國際電線은 지난해 6월 일본 고베제철소로부터 제철소 설비보수 점검에 사용되는 전선수입 의뢰를 받고 소량의 제어용 케이블을 시험공급해 왔는데 고베측의 시험평가결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선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제전선이 공급할 전선은 고베제철소의 효고현카코가와제철소의 설비보수 점검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8월 스미토모금속에는 4만달러, 가와사키제철소에는 1만달러 규모의 전력용 케이블을 시험공급했으며 이달에는 NKK에 1만달러 상당의 전력용 케이블을 시험공급할 계획이다.

국제선선은 고베제철소의 결과로 보아 가와사키 스미토모 NKK등에도 올해부터 전선의 대량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본제철소 등은 스미토모전기등을 비롯한 일본내 유명전기회사 제품을 전량 사용해 왔는데 최근 円高로 원가가 상승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이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동사는 일본제철소에 대한 전선공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동경전력 등 전력회사에 대한 전선공급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株)水山重工業, 환경 設備분야 進出

(株)水山重工業(代表 : 朴桂鐸)은 올해 경영 목표를 세우면서 환경설비 생산을 신규 진출사업으로 확정하고 忠南 牙山공장에 건평 4천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 건설 재활용플랜트 등 각종 환경플랜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완공키로 했다.

동사는 환경사업분야 참여를 위해 1단계로 40억원을 투자,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59%가 늘어난 2천 5백62억원으로 잡고 있다. 또한 신규개발품으로 내놓은 폐기물파쇄기는 각종 쓰레기, 페타이어, 플라스틱류 등을 파쇄해 폐기물의 부피를 70%이상 줄일 수 있으며 신규 설비투자에 2백 19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 부문에 41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LG電線(株), 제2 성장의 해 선언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LG電線(株)(代表 : 權炆久)는 乙亥年을 제2도약의 원년으로 표방하고 「2천년대 세계 톱 10기업」과 관련한 사업구조 조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LG 電線은 이같은 대안의 하나로 우선 올해 전선부문의 매출액을 작년보다 12%가량 높게 책정한 8천3백억원, 97년에는 1조원규모에다 경상이익을 4%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 운영키로 했다.

LG전선의 중장기 경영계획은 수익성 확보를 바탕으로 세계적 우량기업이 되기 위한 장기 경쟁 우위 요소를 갖추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동사는 전선부문을 주력사업과 육성사업, 독립수익사업등 3개분야의 사업군으로 조정하고 주력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정보고속화시대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초고압 전력과 광 관련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육성사업에는 LG전선이 신규로 사업을 다각화한 사업용 고무와 특수알루미늄 그리고 리드프레임과 커넥터 같은 전자부품산업이 주요 개발프로젝트로 묶여져 있다. 향후 2천년에는 이 육성사업이 전선부문 전매출의 40%정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선은 또 독립 수익사업을 기존의 銅통신과 피복선등 사회기간산업의 투자 성숙으로 나타난 성숙기사업으로 책정, 사업정예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함께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군으로 확보하고 고비용, 저수익사업의 구조조정, 운전자본의 감축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에서 시간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의 질」을 이끈다는 계획이다.